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崔永昌(국립진주박물관)

들어가며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명군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참전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의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7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거의 전 지역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임진왜란은 조선후기와 근·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와 기억에 각인된 사건이 되었으며, 뿌리 깊은 반일감정 또는 적대적 대일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16세기 말 동아시아 3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한·중·일 3국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기억 또는 이해하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하여 3국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한국), 분로쿠게이초노에키(文祿慶長の役, 일본), 항왜원조(抗倭援朝, 중국) 등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른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조선시대 전쟁 직후부터 ‘임진년의 왜적(壬辰之倭賊)’ 또는 ‘임진년의 변란(壬辰之亂)’ 등으로 표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으로 정착되었다.² 이후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란 명칭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식민지 경험에 따른 반일감정과 역사적·정치적 목적 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임진왜란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국난극복사관이다. 일반 국민의 이해나 방송·영화 등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자는 주장과 시도가 힘을 얻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국난극복사관에 입각한 임진왜란 이해는 여전히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현대까지 한국에서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소개하

¹ 이재 「조선해적계 對日 人寇 關係 及 倭寇 對 朝鮮 侵襲 史」, 『근사』 84, 2012.

² 『세종실록』 「신유정벌」에 「壬辰倭亂」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이 관련된 일기(1623~1649) 대역사된 것으로 보인다.

³ 오종욱 「여기 일본의 전쟁 안철판」, 『내일은 역사』 1, 2000.

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인식

임진왜란은 정신적·물질적으로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조선정부가 전쟁 직전 파악한 인구(1000만)와 토지(500만 결)가 전쟁 직후에 각각 약 7분의 1(150만)과 10분의 1(50여만 결)로 감소할 정도로 피해를 겪었다.⁴ 인명 피해와 일본에 납치된 피로인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일본군이 서울 점령 기간 중 조선의 제 9대 왕 성종과 11대 왕 중종의 능인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파헤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는 ‘한 하늘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不共戴天) 원수’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인식은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국난극복사관은 근대 역사학이 도입된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70년대를 거치면서 확립되었지만, 국난극복사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의 묘호(廟號)는 원래 선종(宣宗)이었으나, 1616년(광해군 8)에 선조로 격상되었다.⁵ ‘조(祖)’는 새 왕조를 창업한 임금에게 쓰는 것으로, 선조를 멸망위기에 있던 왕조를 구한 군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① 국가 차원의 임진왜란에 대한 추모와 기억만들기

1604년(선조 37)의 호성(扈聖)·선무(宣武)·청난(淸難)공신 책봉에서⁶ 나타나듯,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⁷ 호성공신 86명, 선무공신 18명, 청난공신 6명이 책봉되었는데, 선무공신 가운데 무공을 세운 사람은 14명에 불과하였다. 무엇보다 선무공신보다 호성공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은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⁸

“중국 군대의 힘이 아니면 왜적을 어떻게 물리쳤겠는가. 강토를 회복한 것은 모두 중국 군대의 공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 일이 없다. ... 여러 해 동안 방수한 공이야 어찌 감히

⁴ 강진한기의 「임진왜란의 인과」, 『16세기 성화유역』(담양 한자 조선), 2014.

⁵ 『광해군일기』 권06, 광해군 8년(1616) 8월4일 연일

⁶ 『선조실록』 권75, 선조 37년(1604) 6월25일 갑진

⁷ 김성식 「조선시대 임진왜란 기념사업」, 『지역역사』 31, 2012.

⁸ 오종욱 「보통 장어 구이 영동 조종기 이전에 대한 광」, 『내일은 역사』 18, 2004.

전혀 없다고 하겠는가.”⁹

선조는 이처럼 조선의 관군이나 의병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 처음 선무공신 후보는 이순신을 포함하여 4명만이 오를 정도였다. 선조는 임진왜란 극복에 명군의 공로가 절대적이며, 자신을 의주까지 수행하고 명나라 군대를 불러오는데 공헌한 신하들의 공로가 제일 크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을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내시들까지 호성공신에 책봉한 반면, 정인홍·김면·곽재우·김천일·조현 등 의병장들을 제외해 공신책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다.¹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05년(선조 38)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을 도운 9060명을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조치를 내렸다.¹¹ 정인홍·김면·곽재우 등은 이 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조선 왕조는 성리학적 윤리에 입각한 통치체제 정비를 위해 임진왜란 당시 충신과 효자·열녀의 행적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이를 알리기 위하여 1617년(광해군 9) 『동국신속상감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편찬·간행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인물을 대상으로 총 1587건의 충신·효자·열녀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당한 피해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576건이었다.¹² 또 임진왜란 당시 주 전쟁터였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례가 많았고, 신분으로는 양반과 양인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선 사회에서 충신과 효자, 열녀로 선정된다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고 확인받는 좋은 기회였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을 추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첫 주갑인 1652년(효종 3)을 시작으로 5주갑인 1892년(고종 29)까지 매 주갑마다 전쟁에서 순절한 장수와 병사, 공신들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는 한편,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書院)과 사우(祠宇)들을 건립하였다. 칠백의총처럼 임진왜란 때 희생된 군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제에¹³ 이어 동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좌수영 소속의 군민으로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위해 의용단(義勇壇)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특히 순조·헌종·철종 등 세도정치기에는 그 동안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각 지방의 인물들 대다수에게 표창하면서, 임진왜란 때의 충신과 열사 거의 모두가 추모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후기 임진왜란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순신에 대한 평

⁹ 『선조실록』 권35, 선조34년(601) 3월17일을묘

¹⁰ 『선조실록』 권80, 선조37년(604) 10월29일을해

¹¹ 『선조실록』 권86, 선조38년(605) 4월16일경신

¹² 손철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통해 본 임진왜란의 기억』, 『임진왜란 동아시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¹³ 『영조실록』 권8, 영조10년(734) 6월18일을갑

가의 변화이다. 이순신은 19세기 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미 영웅으로 대접받았다.¹⁴ 물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에 대한 선조와 조정의 평가는 엇갈렸던 게 사실이다. 선무공신 1등에 이순신과 함께 그의 라이벌인 원균도 함께 책봉된 사실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의심과는 달리, 순국 직후 통영에 세워진 사당(충렬사)을 시작으로 효종 때 남해 노량의 사당(충렬사)이 중건되고, 숙종 때 지역 유생의 요청으로 이순신의 묘가 있는 아산에 사당(현충사)이 세워졌다. 앞서 광해군 때 『동국신속상감행실도』를 편찬하면서 충신전에 수록된 이순신은 1643년(인조 21)에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는데 이어, 효종부터 정조대를 거치며 송모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효종 대에 『선조수정실록』이 마무리되면서 이순신은 명실 공히 ‘임진왜란 최고 전공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광해군과 인조, 효종이 이순신을 이처럼 기념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광해군은 후금의 공격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인조는 청에게 항복한 직후였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의 수모를 갚고자 적극적으로 복벌을 추진하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위상은 숙종 때 ‘선정(先正)’으로 호칭되면서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선정(先正)’은 고인이 된 정신(正臣)이란 의미로, 이이와 송시열, 송준길 등이 당시 선정으로 불린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어 전라도 고금도에 세워진 관왕묘, 즉 관우의 사당에 조선 장수의 대표로 이순신이 배향되는데, 이로써 이순신은 조선은 물론,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무장이 되었다.¹⁵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의 중화문화를 수호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순신을 재평가 한 것이 이 시기 현창사업의 배경이었다.¹⁶

이순신에 대한 송모는 영조를 거쳐 정조 때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 7월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는 교서를 내리는 한편,¹⁷ 직접 이순신의 신도비명을 짓고 1795년(정조 19)에 『이충무공전서』를 편찬·발간하였다. 조선시대 왕명으로 신하, 특히 무장(武將)의 문집이 편찬된 예나 왕이 신하의 비문을 지어 내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우였으며,¹⁸ 이순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임을 국왕에 의해 확인받게 된 셈이 되었다.

문(文)에서는 송시열을, 무(武)에서는 이순신을 크게 현창한 정조는 『이충무공전서』를 간행하여 명나라 신종황제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 유학자들이 세운

¹⁴ 오죽헌, 『오죽헌』, 2004.

¹⁵ 『조선실록』 권9, 숙종 36년(1710) 12월 17일 조목

¹⁶ 이만, 『이만 평전』, 책문 2012, 417쪽

¹⁷ 『조선실록』 권8, 정조 17년(1793) 7월 21일 갑자

¹⁸ 이만, 「정조의 충공 이순신 숭(崇慕)」, 『충공 이만과 한 해방 계획 해사관』, 2015.

승명배청의 대의명분을 이어가는 상징으로 이순신을 재평가하였다.¹⁹ 『이충무공전서』가 발간됨으로써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활약상은 이후 그의 일기나 그가 보고한 문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에 대한 평가는 영·정조 시기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순신의 위상이 격상되어 기념과 추모가 진행되면서, 그의 후손인 덕수 이씨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무반 가문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순신의 후손들이 후금과의 전쟁이나 영조 때 발생한 이인좌의 난에서 보인 충절은 ‘충신의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입증하였으며, 이순신이 기념비적 인물로 추앙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²⁰

물론, 이순신뿐만 아니라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서인계 송상현도 복벌을 추진하던 효종과 송시열에 의해 절의의 상징으로 선양되었다.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 안음현감으로 황석산성을 지키다 아들과 함께 순절한 곽준, 승장인 사명당 유정 등도 크게 헌창되었다.

② 지역 사회와 개별 문중 차원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와 기억만들기

조선후기 임진왜란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거쳐 개별 가문으로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 남인 사족의 경우, 의병장의 후손이라는 기억을 조작하여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중앙정치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곽재우가 화왕산성을 방어한 지 137년 후인 1734년(영조) 『창의록(倡義錄)』이란 책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화왕산성에 들어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명단’이란 의미의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이 수록되어 있다. 「화왕입성동고록」에는 모두 699명의 성명과 자, 생년, 호,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첫 장에 나오는 19명만 방어사 곽재우 군대의 조직으로 구체적 임무를 가지고 편성되었던 인물이고, 나머지 680명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창녕의 화왕산성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115명)과 경주(63명), 서울(55명) 사람들이 많이 수록된 이 명단은 실제 화왕산성 수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다.²¹ 임진왜란 이후 진행된 현창사업의 분위기 속에서 영남 제일의 의병장으로 추앙받던 곽재우와 자신들의 선조를 연관시키고자 하였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²² 『창의록』출판을 주도한 곽재우의 증손 곽원갑과 박윤광은 1736년 영남유생 4000명의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종사(文廟從祀) 반대 상소에 참여했던 인물로, 「화왕입성동고록」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에 대항하여 영남 남인의 단합을 꾀하기 위해 박윤광 등 영남 남인의 중심인물들

¹⁹ 장희 「어선에 대한 지위역의역화 4백년 아진 이순신 단의 개화. 『영남문화사상』, 휴머니티 2007, 202~203쪽

²⁰ 오죽헌 「인문」 2004, 161쪽

²¹ 하희 「화왕산성 개척사 개척의 개척. 『영남문화사상』, 휴머니티 2007, 122~125쪽

²² 김성 「조선후기 영남 남인의 단합. 『지역역사』 31, 2012, 27쪽

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³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의병을 총괄했던 김면의 『임진창의시동고록(壬辰倡義時同苦錄)』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좌도와 우도의 의병 관련 인물이 대부분 망라된 『임진창의시동고록』에는 모두 162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19세기는 영남 남인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사실상 막혀있던 시기로, 여기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유력 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²⁴ 이와 함께 1799년(정조 23) 광주에 살던 고경명의 후손을 중심으로 선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나, 1831년 진주에서 간행된 진주성전투 참가자들을 기록한 『忠烈錄』의 간행처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임진왜란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 이인좌의 난에서 공을 세운 호남출신 인물 1457명의 약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46명이 임진왜란 관련 인물이다. 정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 자료이지만, 조선후기 호남의 사족들에게는 임진왜란 때 활동한 선조를 인정받는 작업이었기에 서로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다.²⁵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문중들은 국가의 임진왜란 현장 분위기 속에서 실기(實記)를 편찬하여 선대에 대한 기록의 재생을 시도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85년 경상우도 의병장 김면의 『송암실기(松菴實記)』를 시작으로 임진왜란 의병장에 대한 실기와 유고가 간행되었는데, 임진왜란 의병운동에서 뚜렷한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인 경상좌도에서 많은 실기가 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실기에는 「동고록」과 유사하게 인명만 나열한 각종 「회맹록(會盟錄)」이 실려 있다. 이는 의병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조상을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자, 이를 통하여 다시 향촌사회에서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였다.²⁶

③ 역사소설 『임진록(壬辰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민중의 임진왜란 이해

임진왜란이 끝난 뒤, 미증유의 전란을 체험한 민중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역사소설 『임진록』이 등장하였다. 병자호란(1636) 이후 17세기 중반에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 등장한 뒤, 지금까지 한글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70여 종의 서로 다른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²⁷ 임진왜란의 경험을 통하여 전승된 배외적(排倭的)인 전쟁설화가 오랜 구전의 과정을 거

²³ 하희, 『요미문』 126~17쪽

²⁴ 강형, 「松菴 金沔의 연의와 관련 자료의 검토」, 『대구학』 78, 2005.

²⁵ 김희, 『요미문』 35쪽

²⁶ 김희, 『요미문』 29~33쪽

²⁷ 소영정, 『임진왜란사』 1, 해미출판사, 2000. 존B. 단권, 「임진왜란의 기구단위형 『임진록』 등 민간에 나타난 민중의 인식」, 『임진왜란사』 3, 유미출판사, 2007. 『임진록』 판본의 수가 40여 개로 추고 있다

신전』을 필두로,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을 국난을 극복한 ‘민족의 영웅’으로 강조한 전기물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모두 19장 60쪽 분량의 글에서 신채호는 이순신을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해 낸 성현(聖賢), 나아가 성웅(聖雄)’으로 신격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순신을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하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난을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넬슨보다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거북선을 세계 철갑선의 원조로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박은식도 19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이순신전』을 발표하였다. ‘고금 수군의 제일 위인, 세계 철함의 발명 시조’라는 부제가 나타내듯이, 이순신의 위대함과 거북선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이순신과 영국의 넬슨 제독을 비교하여 이순신이 더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한 것은 신채호의 저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¹ 어쨌든 20세기 초반 한국을 대표하는 두 학자는 국난을 극복한 영웅 이순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였고, 이들의 역사의식은 20세기 내내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이후 이순신의 성웅화, 나아가 신격화 수준으로 나아간 배경에는 두 학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24년 이순신을 ‘비상한 애국자’이며 ‘정의인도가(正義人道家)’로 극찬한 장도빈의 『이순신전(李舜臣傳)』에 이어, 1925년에는 「이순신전」을 비롯하여 12명의 간략한 전기를 실은 『조선지위인(朝鮮之偉人)』(개벽사)과 최찬식의 『고대소설 충무공이순신실기』(박문서관)가 각각 출판되었다. 1931년 이윤재는 한 해 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엮어 『성웅이순신(聖雄李舜臣)』(한성도서주식회사)을 출간하였다. 한글 전용에 활자체도 세련된 국판본으로, 그 동안 출간되었던 어떤 이순신전에 비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인보의 서문이 들어 있다. 이들 책에는 어려운 시대 이순신과 같이 성웅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인물이 우리 역사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 민족적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³²

이윤재에 이어 이광수는 장편소설 형식의 또 다른 이순신전을 발표했다. 1931년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178회 연재하였던 것을 묶어 1932년 『이순신』(문성서림)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은 광복 후인 1948년 영창서관에서 다시 출간된 이래, 1968년, 1971년, 1995년에 이어 2004년에도 출판되었다. 이광수는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거북선 제조와 국난을 극복한 영웅으로서 이순신의 면모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순신의 자기희생적 ‘충의(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순신과 유성룡을 제외한 조선 백성들과 신료들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도망치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몰염치한 존재 또는 사리사욕에만 집착하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표현하였

³¹ **야담** 위키책426~428쪽

³² **강희** 위키책213~214쪽

다. 침략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포함한 일본 측의 문제를 거론한 대목은 찾을 수 없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조선 왕조의 끝없는 부패와 무능에서 찾은 이광수의 시각은 그가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하여 발표한 ‘민족개조론’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³³

② 잊혀졌던 저술가, 현병주의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錄)』

일제강점기 임진왜란사 연구는 주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 주로 일본의 관학자들이 주도한 반면, 국내 학자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³⁴ 일종의 교양서로 최남선이 저술한 『임진란』(동명사, 1931) 외에는 본격적인 논문 한 편이 없다. 최남선의 책은 임진왜란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입각한 간략한 개설서이지만, “임진역(壬辰役)은 부패한 조선에 대한 정화(淨化)의 운명이며 침체한 조선에 대한 분기(奮起)의 시기였건만, 조선 및 조선인은 이 역사적 사명에 있어서 실패자였다.”(50쪽)고 서술하는 등 퇴행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³⁵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발굴된 현병주의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錄)』(신구서림, 1928)은 20세기 전반 임진왜란을 다룬 저서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저작이다.³⁶ 『수길일대와 임진록』은 상·하편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0여 쪽(상편 총 88쪽, 하편 총 134쪽)의 분량이다. 1928년 처음 출간된 이후 1935년까지 5권이 간행된 것으로 보아,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병주는 상편에서 히데요시의 출생에서부터 전국시대를 평정한 뒤 조선 출병에 나서는 모습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사를 서술한 하편에서는 조선의 입장만이 아니라,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자료들을 모두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책의 앞 부분에서 상·하편의 참고문헌을 밝혔는데, ▲『선조실록』과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이충무공전서』 등 한국 측 기록 10여 종 ▲덴케이(天荊)의 『서정일기(西征日記)』와 제타쿠(是琢)의 『조선일기(朝鮮日記)』,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孺)의 『정한위략(征韓偉略)』, 이케우치 히로시의 ▲문록경장역(文祿慶長の役)』 등 일본 자료 10여 종 ▲『명사(明史)』와 『신종실록(神宗實錄)』, 송응창(宋應昌)의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등 중국 측 기록 6종으로, 많은 자료를 섭렵하였다. 또한 현병주가

³³ 정희 위키문헌 214~218쪽 및 연암 안희책 429~430쪽 참조

³⁴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 研究』, 『이시평』 2005, 13~15쪽

³⁵ 노영구 「임진왜란의 현황과 과제」, 『동서사』 2010, 4쪽

³⁶ 현병주(1880~1938)는 일제강점기 1910~1930년대 저술에 대해서 45권의 방한 저를 남긴 인물이다. 현병주는 1920년대 말부터 역사학과 전할기 저술에 집중했으며 임진왜란을 다룬 책도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將李如松實記)』(1929), 『순정화홍(純情秘話紅桃)의 일생(一生)』 등을 남겼다.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將李如松實記)』의 저술에 대해 관심을 갖은 연구자로는 2016년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將李如松實記)』의 새로운 서문으로 임진왜란사 연구에 함께 다시 출간되었다.

「저자의 변언」에서 “가장 사실에 치중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맹랑한 말, 허튼 소리 같은 것을 기록에 넣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말처럼, 사료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려 한 것이 특징이다.

『수실일대와 임진록』은 조선후기 민족적·민중적 관점이 투영된 허구성이 강한 소설 『임진록』을 참고하지 않았다. 조선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소설 『임진록』이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과 항상 조선 일국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던 임진왜란 서사에서 벗어나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임진록』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³⁷ 실제 본문 곳곳에 있는 저자의 주석에서 임진왜란을 일국이 아닌 삼국의 시각, 즉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병주는 책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삼국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주석을 통하여 밝혔다.³⁸ 그리고 이순신을 비롯한 어떤 장수나 충신 열사에 대해 영웅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책의 마지막 글 ‘총평’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조선과 명, 일본 모두에 해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를 단죄만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영웅을 숭배하는 시대에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의 일을 히데요시 한 사람의 허물로 돌려보낸다 하여도 히데요시를 애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역사를 과학으로 해석한다 하면 시대가 영웅을 산출하는 것이니, 히데요시의 허물은 그때의 시대가 얼마쯤 부담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³⁹

영웅사관을 버리고 ‘과학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장한 현병주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⁰

3.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인식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45년 이후부터이다. 19세기 후반 시작된 일본의 임진왜란 연구가 대륙 침략이 본격화한 시점에 맞춰 정치·군사적 목적을 강하게 띠면서 이뤄진 것처럼, 한국에서의 임진왜란 연구도 격변하는 정치·사회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일본의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의식하면서 진행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

³⁷ 장연(張燕燕), 「대륙침략의 영웅주의 상투 개념론 『수실일대』에 대해, 『수실일대』, 바르 2016, 307~308쪽

³⁸ 장연 위키 글 308~309쪽

³⁹ 현주 『수실일대』에 담긴 저가 행의 새로운 시각을 쓴 임병사, 바르 2016, 282~283쪽

⁴⁰ 장연 위키 글 312~313쪽 최심 위키 글 325~327쪽

다.⁴¹

① 국난극복사관의 대두와 임진왜란 (해방~1950년대)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을 맞아 한국 사학계가 당면한 과제는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이었다. 물론 해방 직후에는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임진왜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1946년 출판된 이운재의 『성웅 이순신』과 이은상의 『이충무공 일대기』, 1952년에 이무영의 『이순신』 등 몇 종의 이순신 전기가 출간되었다. 1950년 진단학회에서 공동 집필한 『이충무공』을 발간하였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난극복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을 다시 한 번 역사적으로 부각시켰다.⁴² 이 시기에는 특히 이은상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과 경남 진해·거제·통영, 전남 진도 등지에 충무공 동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신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인 손진태는 1949년 펴낸 『국사대요(國史大要)』에서 임진왜란 대신 ‘일본과의 7년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민군(人民軍)의 쫓기’라는 항목에서 의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왜란 7년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때 손진태·이인영 등 다수의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납북되면서 이들의 역사 인식이 계승·발전되지 못하였다.

6·25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 대두된 것이 바로 ‘국난극복사관(國難克服史觀)’이다. 이 사관에 따르면, ‘국난사(國難史)는 국사(國史)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동안 우리 민족이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겪은 국난의 기록’이다. 특히 한국 민족이 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특기하였다.⁴³ 그러나 1950년대 까지도 한국사 분야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고, 통사적 서술에 포함된 임진왜란 기술이 중심이었다.

② 민족주의 흐름 속 국난극복사관의 품미와 임진왜란 연구(1960~1970년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 사학계에서는 일제의 식민체제와 식민사관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한국사의 구조적인 발전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⁴⁴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순신 관련 연구와 함께 의

⁴¹ 광복 후 국내에서 여권 임진왜란 관련 연구를 장려한 주요 성서는 다음과 같다. 이희희 「왜란의 회한」, 『한사연구』 2권, 지인출판사 1987; 오종욱 「임진왜란 방위사적 군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조진태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관의 임진왜란사 연구』, 2005; 박세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민족』, 경인문화사 2005; 노영규 「임진왜란의 현실적 검토」, 『동서사 재평가와 임진왜란』, 2010; 김진우 「임진왜란을 떠나는 한민족의 사적」, 『지역사 연구』 38, 2016; 김홍록 「임진왜란 연구의 화와 제안」, 『군사』 100, 2016 등

⁴² 이은상 「이충무공」, 『이충무공』 431~432쪽

⁴³ 김진우 「서문(序文)」, 『국난사관(國難史概觀)』, 명당 1956, 1쪽

⁴⁴ 노영규 「이론」, 『국난사관』 8~9쪽

병 연구가 활성화된 것이 1960년대 임진왜란 연구의 특징이다.

특히 최영희는 전란이 잦은 한국사에서 다른 민족의 점령 아래 광범위하게 민중이 항쟁에 참여한 사례로서 의병을 주목하고, 의병이 봉기한 사회적 배경과 의병장의 성격, 의병의 변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⁴⁵ 의병을 ‘민족적 레지스탕스’로 규정한 그는 항토 방위의 식과 일본 민족에 대한 한국 민족의 감정을 임진왜란 시기 의병의 사상적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1950년대 국난극복사관적인 의식이 일부 나타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의병을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최영희의 연구는 이후 이재호·김윤곤·이장화·최근목·송정현⁴⁶ 등에 의하여 의병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각 지역의 주요 의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의병 연구는 임진왜란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전이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항왜(降倭)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강인함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⁴⁷ 이를 근거로 ‘이순신·명군과 함께 의병이 임진왜란 극복의 주역이었다.’는 의병 중심의 임진왜란 인식이 형성되었다. ‘무기력’한 조선의 관군 대신, 의병이 육상 전투에서 유격전술로 일본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⁴⁸

한편,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이형식의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상·하)가 있다.⁴⁹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사료를 수집·인용하며 저술한 1900쪽짜리 방대한 저서로서, 전투사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 허선도는 의병 활동을 단순히 향촌 지역의 사족과 농민이 규합한 민족 항쟁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의병 활동이 점차 국가의 일정한 조정과 통제를 받았음을 밝혔다.⁵⁰ 명나라 군대의 파병과 관련된 검토도 1970년대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유구성은 명나라 군의 파병 과정과 명나라 군의 민간인 피해 등의 문제를 정리하였으며⁵¹, 명·청사 연구자인 최소자는 명군의 파병은 조선의 요청과 함께 전쟁이 명나라 본토로 확대되어 북경 일대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⁵² 이를 통하여 임진왜란의 성격을 단순히 일본의 조선 침략과 조선의 승전이라는 민족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명나라를 포함한

⁴⁵ 최영희 「안해의 의병」, 『史學研究』 8, 1960.

⁴⁶ 김근 「곽재의 의병활동 특이적 파병·戰術·戰略을 중심으로」, 『역사학』 33, 1967; 이재호 「안해의 의병활동 특이적 파병·戰術·戰略을 중심으로」, 『역사학』 35-36, 1967; 이장화 「안해의 의병에 대한 일차적 연구를 중심으로」, 『사학』 14, 1969; 최근목 「안해의 湖西 의병에 대하여」, 『문집』 9(총회) 1970; 송정현 「안해와 호계정」, 『역사학』 4, 1972.

⁴⁷ 이형식 「왜란의 원인」, 『한서연구』(2권 제1호) 1987, 320쪽

⁴⁸ 현근 「국사, 을유문화사 1968, 156~157쪽

⁴⁹ 이형식 『壬辰戰亂史』 상하 임진전란사(총 1900쪽) 1967년 저작 1974년 다시 정권상중하로 총 3권으로 발행되었다

⁵⁰ 허선도 「鶴峰先生과 안해의 의병」, 『國譯 鶴峰全集』(국역전집안해) 1976.

⁵¹ 유성 「壬亂時 明兵의 來考-朝鮮의 被害를 中心으로」, 『사학』 20, 1976.

⁵² 최자 「임진시 명군 파병에 대한 논고」, 『동양학연구』 11, 1977.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라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⁵³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신정권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상황은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적있는 교육’과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을 강조한 유신정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사교육의 강화와 함께 호국문화 유적의 복원과 정비, 국가주의에 입각한 충효사상의 강조와 교육 등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세적 대남정책과 1975년 남베트남 패망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계기로 국난극복사관이⁵⁴ 재등장하여 풍미하였다. 한민족의 역사를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보는 국난극복사의 관점에서 전쟁사는 항상 초기 패전에 이어 전 민족의 단합에 의한 항전이라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는 임진왜란에 대한 국난극복사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국난극복사류의 인식은 1979년 유신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이후의 임진왜란 연구와 국사, 국민윤리 등 이른바 국정과목을 통해 계속 존속하며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⁵⁵

무엇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이순신에 대한 국가적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 시조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은상 외에 최영희, 조성도와 같은 역사학자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이순신의 성용화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국가가 주도하여 현충사와 한산도 제승당 등 이순신 관련 유적의 성역화 사업을 펼쳤으며,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세종대왕과 함께 충무공 동상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미화, 성용화 사업은 이후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⁵⁶

③ 민주화와 새로운 임진왜란 인식의 대두 (1980~1990년대)

유신체제 붕괴 후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사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는 민중사학론(民衆史學論)이 제기되고 임진왜란 연구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 이태진은 조선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 인식된 임진왜란 이해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선 관군의 초기 패배의 원인을 16세기 척신 정치의 폐정(弊政)으로 인한 조선 초기 군사제도의 붕괴에서 찾았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임진왜란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조선과 일본의 전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다.⁵⁷ 1985년 허선도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던 ‘순국사관(殉國史觀)’이나 ‘영웅사관(英雄史

⁵³ 노영구 *요괴* 13~14쪽

⁵⁴ 이은상 『한국의 국난극복사』, 휘문사 1978; 이태진 「『한국의 국난극복사』 서평」, 『역사세계』 3, 효산학회 1979.

⁵⁵ 노영구 *요괴* 15쪽

⁵⁶ 이은상 *요괴* 432~434쪽

⁵⁷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 가지 문제」, 『국사 창간』 1980.

觀)’을 지양하고 전쟁사의 입장에서 군제, 군수, 무기, 전술, 관방, 정보 등의 각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그러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고,⁵⁹ 1980년대 의병 연구에서도 1970년대의 국난극복사적인 역사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자치체가 부활하면서 지역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의병부대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⁰ 저명한 의병장 연구에서 벗어나 소규모 향촌사료를 활용한 소규모 의병 부대 및 의병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의병의 성격으로 의병(義兵)과 향병(鄉兵)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 향촌사회사 연구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시기 재지 사족의 향촌지배 체제가 의병의 모집과 활동의 주요 기반이었음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⁶¹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이 되는 1992년을 기점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졌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론』 22호(1992) ‘임진왜란의 재조명’ 특집에서, 기존의 의병 외에 관군의 활동, 명군의 참전, 피로인, 임진왜란 전 조선의 국방실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외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였다. 1990년대 들어 임진왜란 당시 일기(日記)를 비롯하여, 향촌과 문중 자료들이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병의 주력이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관군으로부터 이탈한 ‘포장(浦將)’이나 낙오군병인 ‘산졸(散卒)’이었음이 규명되었다.⁶² 이와 함께 의병의 군량과 무기 등이 관변(官邊)에서 적극 지원되었으며, 이는 당시 의병과 관군의 불가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의병 연구에서도 전쟁사적인 시각을 확보하면서 국난극복사관적인 시각의 극복이 시도되었다.⁶³ 임진왜란 당시 전쟁 체험과 개인의 생활을 기록한 실기(實記) 자료들이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등 임진왜란 전공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나 관련 자료가 소개되면서 일본 측 자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문중이나 인물 중심의 임진왜란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연구,⁶⁴ 조선군의 전략·전술,⁶⁵ 축성⁶⁶ 등 임진왜란을 전쟁사적 시각에서 본 연구들도 나타났다. 특히 수군과

⁵⁸ 허도 「임진왜란을 둘러싼 새로운 인식」, 『전국생활기행한서총』, 1985.

⁵⁹ 노영구 『연희』 18쪽

⁶⁰ 조원래 「임진왜란과 향촌」, 『남동학보』 2, 1986; 노영 「임진왜란과 정문정」, 『향토학보』 4, 1987; 조원래 「내주향사료본 임진왜란연구」, 『내주역사재민(독대발간)』 1989; 김취 「임진왜란과 청주위창활동」, 『부산학』 23, 1992 등 다수

⁶¹ 강형 「임진왜란 尙州 지방사족의 동향」, 『민중문화』 8, 1987; 고석규 「정충의 의행과 山林계」, 『한학보』 51, 1988.

⁶² 여진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 『고이』 『倡義遺錄』을 중심으로, 『민중문화』 13, 1992.

⁶³ 노영구 『연희』 22쪽

⁶⁴ 박재광 「임진왜란기 조선의 화약병에 대한 일찰」, 『군사』 30, 1995.

⁶⁵ 이희 「왜적의 戰略·戰術」, 『한사』 29, 1995; 노영구 「선대 紀效新書의 砲法 陣法 논」, 『군사』 34, 1997; 강문 「행대첩이권

의병 연구에 가려 주목되지 않았던 관군과 명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의병과 수군 중심의 임진왜란사 인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쟁이 가지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⁶⁷ 특히 한명기는 본격적으로 명나라군의 참전과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⁶⁸ 임진왜란사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관군과 명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의 연구에서 종종 나타나는 ‘(임진왜란 당시) 정규군으로서 관군의 존재가 거의 없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⁶⁹

④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의 임진왜란 인식 모색 (2000년대 이후)

1980년대 제기되었던 전쟁사적 시각에서의 임진왜란 연구가 2000년 이후 주된 경향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4년에 출간된 『군사』 51호의 ‘임진왜란의 재조명’ 특집에서 임진왜란 시기 조·명 연합군의 기병작전, 거북선, 해전을 통해 본 조·명·일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무기 체계, 단병기(短兵器), 진주성 전투 등 전쟁사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 유럽 중심의 세계사에서 탈피하려는 이른바 지구사(global history)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였던 기존의 한국사 이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임진왜란도 한·중·일 3국이 참전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2006년 6월 경남 통영에서 ‘임진왜란:조일(朝日)전쟁에서 동아시아 삼국전쟁’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와 이 때 발표된 논문들을 엮어 2007년 출간된 연구 성과가 대표적이다.⁷⁰ 이와 함께 15세기 후반 이후 대항해 시대의 여파로 포르투갈 및 스페인 세력이 동아시아까지 밀려오고 은(銀)을 매개로 유럽과 중국이 연결되는 유동적인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연구도 나왔다.⁷¹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한일역사공동연구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⁷²

윤의 전략과 전술, 『임진왜란과 관군, 전쟁기념관』1999.

⁶⁶ 이희 「壬亂中 山城修築과堅壁清野에대해」, 『卓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叢』, 1995.

⁶⁷ 조원 「명의출병과 임진왜란의 추이」, 『한사첩』 22, 1992; 장호근 「임진왜란 관련 의찰」, 『한사첩』 22, 1992;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사회 문헌 연구」, 『군사』 35, 1997; 박재광 「연관 초진대사회 官軍의 활약과 관군」, 『임진왜란과 관군, 전쟁기념관』1999.

⁶⁸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비평』1999.

⁶⁹ 노영구 앞의 글 24쪽

⁷⁰ 장희익 앞의 글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먼리포트』2007.

⁷¹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경인문화사』 2005; 강준한 앞의 글 「동아시아 7년 전쟁」, 『16세기 성화 유물』(‘담음 한사 조연2), 2014.

⁷² 제1기 한일 공동연구(2002.5.~2005.3.)와 제2기 한일 공동연구(2007.6.~2009.11.)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6권과 7권의 공동보고서를 펴냈고 이의 합

다. 또한 의병장의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경우가 많아, 조상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실상을 은폐한 측면도 적지 않다.⁷⁸ 물론 국난극복의 교훈을 임진왜란에서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조선후기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위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난극복을 강조하거나 이용하여 온 측면이 강하고, 무엇보다 국난극복사관은 식민사학 못지않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특정한 역사상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긴 전쟁이라는 시각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초기 전쟁에서만 패배하였을 뿐, 평양성전투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이 승리하였다는 주장이다. 전쟁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대교린 관계를 복구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이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할 때, 조선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농경지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만 1세기가 걸렸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전쟁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었음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임진왜란을 이긴 전쟁으로 보는 관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방기한 정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가 건국 200년 만에 맞닥뜨린 커다란 위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넘김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은 전쟁이었다.⁷⁹

셋째, 임진왜란은 조선에서 사대주의를 강화시켜준 전쟁이었다. 사실 명군의 참전은 조선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이기 보다는 조선을 전쟁터로 삼는 것이 낫고, 평원지대인 요동보다 산악이 많은 조선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전쟁 중 명군의 횡포와 이후 내정 간섭에도 불구하고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는 명을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인’으로 높이 받드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임금과 양반 모두 권위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이들은 성리학의 명분론을 강력히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명에 대한 사대의 강조로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며 백성들은 큰 참화를 당하였지만,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이를 통하여 강화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1960년대 들어와 일본 내부사정과 관련하여 전쟁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에도 변함없이 실려 있는 ‘16세기 말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불만 세력의 관심

⁷⁸ 오종욱 「여위일의 전쟁 양면관」, 『내일을 위한 역사』 1, 2000, 82~84쪽

⁷⁹ 오종욱 위위 글 87~88쪽

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⁸⁰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1980년대 들어와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1990년대에는 서양문물의 자극 속에 일본이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 관계 및 조공무역(책봉과 조공 체제)을 축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자국사에 매몰된 한·중·일 3국의 임진왜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다시 살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⁸¹.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국사적(一國史的)인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는 일제강점기 현병주의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사료와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중·일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의 사료와 각종 고문서도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임진왜란을 다룬 제대로 된 통사 한 권이 없는 실정과도 연결된다.⁸² 이 같은 현실은 한국의 임진왜란 연구가 아직 보편적 역사상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충실한 일국사적(一國史的)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역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⁸³ 또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동아시아 3국이 공동으로 사료를 정리할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상세하게 역주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 비교사적 인식아래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⁸⁴

⁸⁰ 주선우 외 『고종과 한사』(5권 천제) 2018, 130쪽

⁸¹ 강정현 『한국의 외교』 2014.

⁸² 정복 『임진왜란 연구의 한 중 일 중요 사료』 『한사학지』, 2016, 19~20쪽

⁸³ 노영규 『외교』 28~30쪽

⁸⁴ 정복 『외교』 21쪽 노영규 『외교』 30쪽

주요 참고 문헌

저서

- 이형석, 『壬辰戰亂史』 상·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이형석, 『壬辰戰亂史』 상·중·하, 신현실사, 1974 등으로 증보개정).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2판), 지식산업사, 1987.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이장희,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이장희, 『개정·증보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로 개정·증보).
- 이민용,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조원래,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사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5.
-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 한일문화교류기금,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이민용, 『이순신 평전』 책문, 2012.
- 강응천·한명기 외, 『16세기-성리학 유토피아』(‘민음 한국사’ 조선02), 2014.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현병주, 『수길일대와 임진록-망각된 저술가 현병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임진왜란사』, 바오, 2016.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5판), 천재교육, 2018.

논문

- 최영희, 「임란의병의 성격」, 『史學研究』 8, 1960.
- 김윤곤 「곽재우의 의병활동-특히 조직과 戰術·戰略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33, 1967.
- 이재호, 「임란 의병의 일고찰-특히 관군과 명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35·36, 1967.
- 이장희, 「임란 해서 의병에 대한 일고찰-연안대첩을 중심으로」, 『사총』 14, 1969.
- 최근목, 「임란때의 湖西의병에 대하여」, 『논문집』 9(충남대), 1970
- 송정현,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역사학연구』 4, 1972.
- 허선도, 「鶴峰先生과 임진의병활동」, 『國譯 鶴峰全集』(국역학봉전집편찬위원회), 1976.
- 유구성,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朝鮮의 被害를 中心으로」, 『사총』 20, 1976.
- 최소자, 「임진란시 명의 파병에 대한 논고」, 『동양사학연구』 11, 1977.
-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 창간호, 1980.
-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조원래, 「임란 해전과 흥양수군」, 『남도문화연구』 2, 1986.
- 나중우, 「임란의병과 장성남문 창의」, 『향토문화연구』 4, 1987.

- 정진영, 「임란전후 尙州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 고석규, 「정인홍의 의병활동과 山林기반」, 『한국학보』 51, 1988.
- 조원래, 「나주지방 사례로 본 임란의병 연구과제」, 『나주목의 재조명』(목포대 박물관), 1989.
-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입문(2판)』, 지식산업사, 1987.
- 김석희, 「임진왜란과 청도지역의 창의활동」, 『부산사학』 23, 1992.
-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임란전국의 추이」, 『한국사론』 22, 1992.
- 장학근, 「임진왜란기 관군의 활약」, 『한국사론』 22, 1992.
- 박재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30, 1995.
- 이장희, 「왜군격퇴의 戰略·戰術」, 『한국사』 29, 1995.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의 사회 문화적 영향」, 『군사』 35, 1997.
-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34, 1997.
- 강성문, 「행주대첩에서의 권율의 전략과 전술」,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 박재광, 「임란 초기전투에서의 官軍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시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和歌山縣立博物館 소장 ‘壬辰倭亂圖屏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 2003.
- 오종록,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조선 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18, 2004.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2005.
-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정진영, 「松菴 金沔의 임란 의병활동과 관련 자료의 검토」, 『대구사학』 78, 2005.
-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존 B. 던킨,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 형성-『임진록』 등 민간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金沔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2007.
- 최원식, 「임진왜란을 다시 생각한다-『수길일대와 임진록』을 읽고」,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수길일대와 임진록』, 바오, 2016에 재수록).
-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2010.
- 손승철,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통해 본 임진왜란의 기억』,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이규배,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군사』 84, 2012.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이태진, 「정조대왕의 충무공 이순신 숭모(崇慕)」,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2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5.

김강식,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정구복, 「임진왜란사 연구와 한·중·일 중요 사료」, 『한국사학사학보』, 2016

장연연(張燕燕),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그의 생애와 계몽담론」, 『수길일대와 임진록』에 대하여, 『수길일대와 임진록』, 바오, 2016.